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응원합니다.

Vol. 6 03
2017 04

부산 체육



BUSAN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TOTAL NEW
JOBS CREATED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49
TRILLION KRW
IN REVENUE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
TRILLION KRW
IN REVENUE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대구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를 통한
홍보효과로 부산은 세계속의
유명 관광도시가 될것입니다.

Contents



06



18



58

부산체육 PEOPLE & PEOPLE

- 04 이달의 칼럼_변현철 부산일보 편집국 스포츠부장
- 06 파워 인터뷰_박희재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 10 인물 포커스_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체육 PANDRAMA

- 14 부산체육의 새로운 시작_부산광역시 체육회 중점 추진사업
- 18 생생 리포트_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기록하다
- 27 제8회 삿포르 동계아시아 경기대회_김마그너스 · 김건희 · 강영서 선수
- 28 부산스포츠의 불꽃_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 30 줌인 01_제5차 이사회
- 31 줌인 02_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 32 Award_부산체육고등학교 우하람
- 33 설원을 달리다_청소년 스키교실
- 34 큰 꿈 키우는_부산스포츠클럽, 진천선수촌 방문

센터엔터 PANDRAMA

- 36 부산국민체육센터소식
- 38 북구국민체육센터소식

구·군체육 PANDRAMA

- 40 구·군체육회 소식

회원종목 PANDRAMA

- 44 2017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연합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45 회원종목단체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

부산체육 NEWS BRIEFING

- 48 체육정책_부산광역시 · 문화체육관광부

교실 PROGRAM

- 51 부산광역시체육회_프로그램
- 52 부산국민체육센터_프로그램
- 53 북구국민체육센터_프로그램

부산체육 WELFARE

- 54 삶의 질 향상을 위한_세계의 스포츠복지

부산체육 TRAVEL

- 58 산뜻한 봄 여행_가까운 곳에서 진하게 즐기자

부산체육 TEA

- 62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_따뜻한 봄차 이야기

부산체육 BOOK

- 64 삶을 가치있고 위대하게 만드는_책

부산체육 2017 03+04 통권 6호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염원합니다.

발행일 | 2017년 3월 10일 (격월간, 비매물, 통권 제6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 · 취재 이성재, 서원택, 이민경,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500.1300 / 500.7900 Fax 051.500.1309 / 500.6306

부산국민체육센터_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 Tel 051.243.5959, 5931~2 북구국민체육센터_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5번지 Tel 051.355.7070

디자인 · 인쇄 | 한글그래픽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41(범천동) Tel 051.632.7842 www.hanguel.co.kr



이제는 '평창 올림픽'이다



변 현 철 부산일보 편집국 스포츠부장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지난 2월 19일 개막해 8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26일 폐막했다.

한국 선수단은 2011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대회 이후 14년 만에 종합순위 2위를 탈환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를 따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15개·종합 2위'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통의 메달밭'인 스피드스케이팅(6개)과 쇼트트랙(5개)에서 선전하고 피겨스케이팅에서 역대 첫 금메달, 스키 종목에서는 금메달이 4개나 쏟아져 역대 최다인 1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총 50개의 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 때 기록한 동계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메달(38개)을 훌쩍 뛰어넘었다. 개최국 일본(금 27·은 21·동 26)이 종합 1위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금 12·은 14·동 9)의 막판 추격을 가볍게 따돌리고 종합 2위에 복귀했다.

이번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은 무엇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이번 대회는 평창 동계올림



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를 확실히 띄울 수 있는 불협 무대였기 때문이다. 한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화끈한 금메달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둬 최근 사회적 혼란으로 침통해 있는 국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줬다.

한국이 이번 대회 전까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에 입상한 것은 1999년 강원 대회(금 11),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대회(금 10) 등 두 차례뿐이었다. 역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전통의 메달 효자 종목이었다. 삿포로에서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에 올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인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성남시청)은 나란히 2관왕을 차지하며 종합 2위 목표 초과 달성에 큰 힘을 보탰다. '고교생 스프린터' 김민석(평창고)은 이승훈과 함께 팀 추월 금메달을 합작하더니 남자 1500m에서 아시아신기록인 1분46초26으로 우승하면서 2관왕에 올랐다. 빙상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피겨 여자싱글에서 역대 첫 금메달이 나왔다. 주인공은 '연아 키즈'인 최다빈(수리고)이었다. 최다빈은 평창 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역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에서 모두 금메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 스키 대표팀은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 이후 두 대회 연속 금메달 4개를 차지했다. 6년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는 알파인 스키(3개)와 크로스컨트리(1개)에서 금메달 4개를 합작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알파인 스키(1개), 스노보드(2개), 크로스컨트리(1개) 등 3개 종목에서 우승자를 배출했다.

가장 큰 성과는 스노보드 알파인 회전과 대회전을 휩쓸며 2관왕에 오른 이상호(한국체대)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마그너스(협성르네상스)가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크로스컨트리에서 우승한 것도 큰 성과였다.

지난해 동계유스올림픽에서 2관왕에 올라 가능성을 인정받은 김마그너스는 상승세를 앞세워 이번 대회 남자 크로스컨트리 1.4km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역대 한국 선수 크로스컨트리 1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는 남자 10km 클래식 은메달에 이어 30km 계주 동메달까지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나 된 열정’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하면서 지구촌 겨울 스포츠 대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도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며, 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유치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았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첫 도전에 나섰지만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밴쿠버에 무릎을 꿇었다.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한 평창은 또다시 결선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에 패해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

결국 삼수에 나선 평창은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마침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8년에 걸친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택받은 평창은 ‘하나 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한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총 28차례나 열려 ‘성공 개최’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준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휩싸이며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최순실 파문’에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쏟아지면서 조직위는 스폰서 확충 작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도 최근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단체, 강원도, 평창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대회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8개를 포함해 총 20여 개의 메달을 따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오르는 것이다. 한국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대회는 종합 5위를 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다.



PyeongChang 2018™



6

파워인터뷰

박희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

부산시민 행복의 척도가 될
부산체육을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희채 부회장(이하 박희채 부회장)은 부산생활체육과 함께해온 긴 세월 만큼 부산체육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2011년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의 생활체육 보급에 대한 사랑은 삶속에서 언제나 함께였다. 지난해 3월 회장으로서의 임무는 끝이 났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걸어갈 길은 한결같이 부산체육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 부산체육의 권익 위한 노력

박희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0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총렐라이온스클럽 창립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We Serve'를 모토로 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에서 많은 활동과 기부를 해오다 2013년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에 선정되었다.

이날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실천과 보급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과 복지증진, 공공의 안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서 '제2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봉사부문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덕분에 봉사와 기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굳건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박희채 부회장은 현재 제40대 대한체육회 이사 50명 중에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체육 발전 뿐 아니라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스포츠 선진국을 향한 노력

그는 생활체육의 실천과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추구하며 부산체육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 먼저 생활체육회관 건립기금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및 종목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 증대를 위한 운영비 등 총 3억 2천만원을 기부하였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등록동호인 및 동호인 클럽을 각 205%, 149%를 증가시킴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회원종목단체 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특히, 수탁기관인 부산국민체육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지하수 개발과 공기열원히트 펌프설치 등으로 적자에서 흑자구조로 개선하여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증대를 가져왔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나라 체육
행정의 청사진이
다시 그려지고
부산체육회의
올곧은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때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정착되고 있는 송도 및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모범적 운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적인 지방비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 및 부산광역시의회와 긴밀한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정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종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체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형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작년 연말 사직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여 부산시민들은 기후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테니스를 즐기게 되었다.

이처럼 부산생활체육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의 성공적 운영으로 동호인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박희채 부회장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각종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해 체육계는 체육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국위선양과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엘리트 육성에서 생활체육의 폭넓은 저변을 바탕으로 전문체육이 발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이루는 국가체육정책의 변화를 꾀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체육은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에서 국민모두가 국가 대표가 되는 건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빙산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6분의 5라는 물속에 숨겨진 부분이 있기에 6분의 1이라는 빙산이 물 위에 부상할 수 있다. 박희채 부회장은 줄곧 업무를 보면서 그 숨은 6분의 5인 빙산을 물 위에 띄워 올리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다. 그 와중에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함께 부산아시아

드 보조경기장에서 10km달리기로 단합대회를 하며 화합과 소통의 무대를 마련한 것은 기쁨의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지난 5년간 생활체육 여정을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반성해보니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 행정마인드를 창조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쓴 보람은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앙을 오가며 국비를 확보하느라 나름의 열성을 쏟은 일과 동호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1년에 무려 4만km나 달리면서 부지런함을 기쁨으로 여겼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부산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약 1억원 가량의 재정적자 상태였던 것을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와 흑자운영의 초석을 다진 일은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는 “올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나라 체육 행정의 청사진이 다시 그려지고 통합체육회의 올곧은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박희채 부회장은 ‘경쟁과 승부’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스포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체육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일면을 모두 겪어온 그에게 이제 스포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의 지렛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세속의 욕망을 훌훌 날려 버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삶이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불교의 우화를 떠올리면서 박희채 부회장은 가족을 생각하고, 사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민들레 훌씨처럼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날아갈 인생에 뭐그리 많은 것을 탐할 일인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여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박희채 부회장은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부산체육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슈바이처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문명은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은 체육 현장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하고, 인생의 뒀안길을 생각하고, 충만한 삶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이 모두 즐거워지는 행복활동이 스포츠의 본뜻으로 ‘건강한 국민이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부산시민에게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주며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10

새로운 도약 위한 인물 포커스

송 미 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체육,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부산체육,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우리나라에 근대체육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지 불과 100여년이 됩니다. 부산체육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사이 부산 체육계의 저변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넓어졌으며, 유·무형의 체육 인프라를 비롯한 안팎의 역량 또한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산체육은 성장의 시기마다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슬기롭게 완수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 부산직할시체육회의 출범으로 국내 최초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독자적인 지역 체육회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부산체육의 등장 첫해부터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 4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역량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체육회로서 독립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후,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17년,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부산체육회(이하 시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체육회 산하의 70개 회원종목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되기까지 많은 체육인들의 노력과 협조 그리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마음을 합하여 주신 체육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03

송 미 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12

시민과 함께 부산을 바꾸고, 스포츠로 부산을 키우다

씨름부 감독시절,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도하며 많은 업적을 이룩했던 송미현 감독. 그는 당시 젊었던 만큼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보다는 '후배를 지도하는 형님'으로 선수와 똑같이 움직였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송 감독. 그 모습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 아닐까?

2014년,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동아대학교 씨름부 송미현 감독이 지도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30년 동안 동아대 씨름부 감독을 맡으며 스타로 거듭난 천하장사 최홍만을 비롯해 다양한 씨름스타를 배출한 그이다.

씨름은 단지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니며, 오직 자신만을 연마하는 체육활동도 아니다.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의미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뜻이 내포된 씨름의 정신이다. 이러한 씨름의 정신은 부산시 체육회를 이끄는 송미현 사무처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바쁜 체육회 일정으로 따로 운동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자연스레 활동량이 늘어나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송미현 처장은 "일상 생활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말한다.

할 일이 많아진 지금, 송 처장의 두 어깨도 무거워졌다. 그는 이에 대해 "올해 시체육회가 시민과 함께 부산을 바꾸고, 스포츠로 부산을 키우는 부산시체육회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터

송미현 사무처장은 부산시 체육의 청사진에 대해, 먼저 체육단체의 통합이라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시체육회가 가야할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단합된 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스포츠선진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시민의 격려와 응원으로 시체육회가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16년 만에 성취상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팀창단을 통한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미흡했던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체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될 수 있었던 한해였다면, 올해는 거점 부산 스포츠클럽육성과 스포츠과학센터 건립 등으로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시체육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앨런 아이버슨의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부산체육이 지나간 역사에 거뒀던 모든 성공과 영광의 이면에는 '목표를 향한 쉬지 않는 노력과 열정이 함께 숨어있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화합, 소통, 배려하는 체육문화 창조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전하기도 했다. 먼저 국정과제 사업인 거점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에게 체육시설과 지도자·강습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동호인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선수를 육성하기 위함으로 3년간 24억원의 국비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된다.

그는 이에 대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부했다.

특히, 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부산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 즐기는 스포츠, 선순환하는 스포츠, 국격을 높이는 스포츠,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송미현 사무처장은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는 말처럼, "2017년 정유년, 새벽녘 닭의 울음소리는 빛을 부르고 희망을 상징한다"며, 닭의 기상처럼 올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전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체육문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체육의 새로운 시작

부산광역시 체육회 중점 추진사업



» 부산체육의 비전과 목표

체육의 통섭,
“스포츠로 부산을 키웁니다.”

스포츠로
부산위상을
키우다
경기력 향상, 전문체육
기반·지위 강화

스포츠로
시민건강을
키우다
2018 생활체육
참여율 60%

스포츠로
미래희망을
키우다
스포츠클럽 육성, 안정적
선수육성체계 조성

스포츠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교류
등 대외이미지 제고

»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부산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건강과 미래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스포츠

추진과제

전문체육 강화 및 전국체전 성적 향상

1. 학교·실업팀의 정예화 운영
2. 경기력 강화기반으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

생활체육 보급·실천 노력

1. 생활체육 참여율 증대
2. 스포츠 복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

1. 우수 꿈나무선수 적극 발굴육성
2. 학업과 운동 병행의 이상적 체계 정착

스포츠 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1. 일류 스포츠 도시 이미지 선도
2. 국내·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스포츠 교류 확산

2017년도 업무계획

I. 전문체육 강화 및 전국체전 성적 향상

1. 학교 · 실업팀의 정예화 운영

1) 고등부의 상위권 도약 기반구축

- ▶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고등부 전력 향상 도모
- ▶ 시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운동부 집중육성 추진

2) 대학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

- ▶ 대학부 경기력 향상 도모와 운동부 육성 관심도 제고 노력
- ▶ 체전 불참종목 해소 및 비인기종목 집중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3) 실업팀 운영

- ▶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안정적 성적확보를 위한 실업팀 전력보강
- ▶ 지역우수선수 진로안정과 선수 연계육성, 전국체전 불참 종목 해소

4) 市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을 통한 내실운영

- ▶ 지역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에서 상위 입상
- ▶ 부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모범적인 실업팀을 육성 운영

5) 구청 · 공사(단) 등 기타 실업팀 전력보강

- ▶ 우수선수 유출방지 및 실업팀 전력향상을 위한 팀육성 체계구축
- ▶ 부산지역 실업팀과 체육회 실업팀의 상호보완적 팀 연계 육성

2. 경기력 강화기반 전국체전 상위권유지

1) 국내종합경기대회 참가

■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기간 · 장소 : 2017. 2. 9 ~ 12(4일간)
강원도, 서울, 경기도 등
- 경기종목 : 7개 종목
- 참가규모 : 6개 종목 250여명

■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기간 · 장소 : 2017. 5. 27 ~ 30(4일간), 충청남도 일원
- 경기종목 : 36개 종목
- 참가규모 : 35개 종목 1,100여명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 기간 · 장소 : 2017. 10. 20 ~ 26(7일간), 충청북도 일원
- 경기종목 : 47개 종목
- 참가규모 : 1,500여명



2) 전국체육대회 대비 역량 결집을 위한 경기력 향상 지원강화

■ 우수선수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 지원
-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경기지도자 지원

- 지원대상 : 총 33개 종목 67명
- 우수지도자 확보로 경기력 향상 도모
-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선수지도에 전념할 안정적 지도환경 조성

■ 부산연고 실업팀 유대강화 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지원, 각종대회 입상 시 축전발송 등 지역연고 실업팀 소속감 제고

■ 경기력향상을 위한 강화훈련비, 체전출전비 등 지원

- 강화훈련비 : 전국체전 출전 선수 및 지도자
- 체전출전비 : 참가경비 지원으로 경기력향상 동기부여

■ 제98회 전국체전대비 필승분위기 조성

- 부산선수단 결단식
- 동계체전(2017. 1. 5), 하계체전(2017. 9월중)
- 종목(팀)별 전력보고회 개최
- 상 · 하반기 각 1회
- 강화훈련 현장점검 및 선수단 격려
- 출전학교장(1회), 실업팀 지도자(4회), 종목단체(2회) 간담회 시행



II. 생활체육 보급 · 실천 노력

1. 생활체육참여율 증대

- 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교육
 - ▶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찾아가는 현장지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전문 지도자 배치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만족도 향상
- 2) 유아체육활동 지원
 - ▶ 연령별 발육·발달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 ▶ 운동습관 형성을 통한 유아기 성장 및 건강·전인적 발달에 기여
- 3) 생활체육교실 운영
 - ▶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 ▶ 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사회성 함양
- 4)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 ▶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레포츠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놀이문화 보급
- 5)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 ▶ 학교체육시설(실내체육관)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 향상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6)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개최
 - ▶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 ▶ 클럽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회성 함양
- 7)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 ▶ 회원종목단체 조직 활성화 및 저변확산 도모
 - ▶ 부산시민에게 체육활동 및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기회 제공
- 8)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 ▶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
 - ▶ 구·군민과 체육인의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여 범시민적인 체육대회로 승화
- 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 ▶ 전국생활체육대회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활동 성취감 고취
 - ▶ 지역 및 계층간 우정·화합을 통한 시민통합계기 및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 10) 제11회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 ▶ 여성체육 동호인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와 성취감 도모
 - ▶ 여성체육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11) 범시민클럽대항생활체육대회 개최
 - ▶ 생활체육 기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동호인 클럽 활성화
 - ▶ 구 군클럽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최강 동호인 클럽 선발로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2. 스포츠 복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 1)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 청소년의 체육 활동 수요 충족
 - ▶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2) 생활체육안전교실 운영
 - ▶ 안전하고 올바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방향제시, 지속적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도모
- 3)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 ▶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께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보급
 - ▶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 도모
- 4)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 100세 시대를 준비하여 노년층의 건강과 성취감 도모
 - ▶ 노인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어르신들의 축제의 장 마련
- 5)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 전통종목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민속 씨름의 계승 발전
 - ▶ 심신단련 및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 제공으로 시민적 공감대 형성
- 6) 대통령배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
 - ▶ 씨름 동호인 저변 확대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 활성화 도모
 - ▶ 부산씨름왕선발전 입상 선수 경기력 향상 및 동기 부여
- 7) 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 100세 시대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가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 ▶ 게이트볼 인구의 저변확대와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활성화 계기 마련
- 8) 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
 - ▶ 부산시 게이트볼 동호인의 친목 및 화합을 도모
 - ▶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
- 9)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 ▶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 그린스포츠의 대표성을 지닌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통한 시민체력 향상
- 10) 자전거 상설교실 운영
 -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및 교통체증 해소
 - ▶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전거 동호인 저변확산 계기 마련
- 11) 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 ▶ 복합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생활체육 서비스 향상 및 커뮤니케이션의 장 마련

Ⅲ.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

1. 우수 꿈나무선수 적극 발굴·육성

- ▶ 꿈나무선수 육성 우수 팀 및 지도자 지원, 꿈나무선수 장학금 지원
- ▶ 학교체육 활성화 및 꿈나무선수 발굴·육성으로 인적 인프라 확충

2. 학업과 운동 병행의 이상적 체계 정착

1)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진국형 체육문화 저변확대 및 체육활동 인식 제고
- ▶ 전문선수 발굴·육성 다변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 체육문화 보급

2)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 스포츠 레저 활동 수요 충족
- ▶ 청소년 체력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3) 기초종목 챌린지대회 개최

- ▶ 초·중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운동참여 분위기 조성
- ▶ 운동에 소질이 있는 꿈나무선수 발굴 및 전문선수 전환 추진

5) 전용훈련장 확보지원 및 시설개선

- ▶ 전용훈련장 시설 운영지원(10개소)
- ▶ 종합실내훈련장 수탁운영

6)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수탁 운영

- ▶ 거점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과학센터 연계 운영
- ▶ 테니스 동호인 활성화 및 전문선수 발굴·육성
- ▶ 효율적 운영으로 남자 실업팀 창단을 통한 연계육성 시스템 확립

2. 국내·국제대회, 스포츠 교류 확산

1)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 전국대회 개최·참가 지원으로 부산체육 역량제고 및 경기운영능력 배양
- ▶ 국제대회 개최 행·재정 지원을 통한 세계도시 부산 위상제고

2) 2017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

- ▶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와 도시간 우호증진 및 스포츠발전 향상 기여
- ▶ 1992년부터 매년 교차개최, 금년도에는 후쿠오카시에서 개최

3)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 ▶ 생활체육을 통한 국제 친선교류로 민간외교 역할
- ▶ 국제화 시대에 부응, 선진형 생활체육 체험 및 발전방안 모색

Ⅳ. 스포츠 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1. 일류 스포츠 도시 이미지 선도

1) 글로벌스포츠스타선수 발굴·육성

- ▶ 부산관내 중고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선발
- ▶ 차세대 글로벌 스타선수 육성, 국제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국위선양

2) 부산체육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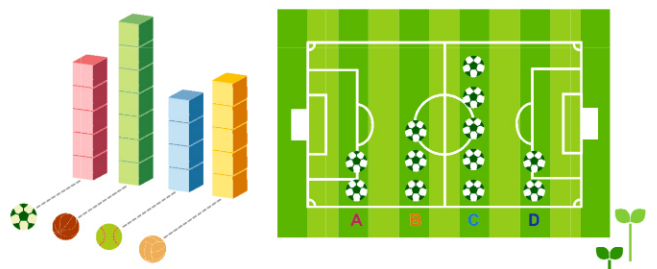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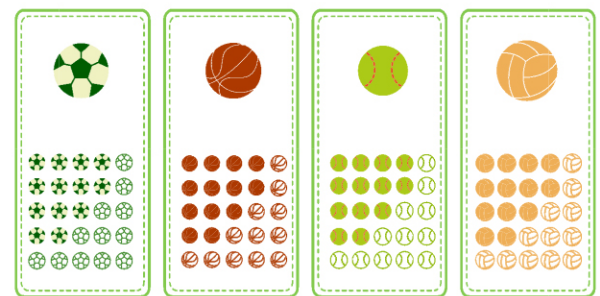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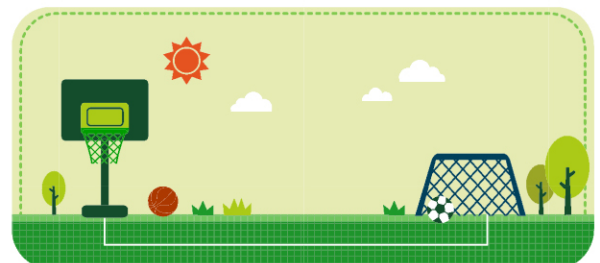
- ▶ 부산의 유일한 체육 전문지로서 부산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선수환 체계구축을 위한 선도 역할

3) 체육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언론매체를 통한 체육인 홍보
 - ▶ 지역 언론매체 적극 활용
-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활성화 추진
 - ▶ 체육회관내 각종 행사(대회) 참가자 대상 전시관 관람 홍보 및 안내
 - ▶ 기념전시관 관람객 자율 방문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추진

- ▶ 경기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선수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경기력향상에 기여
- ▶ 경기지도자 급여체계 정액제 시행





18

생생 리포트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기록하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9일(목)부터 2월 12일(일)까지 4일간 강원, 서울, 경기, 충북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다가오는 2018 평창올림픽 준비로 빙상, 컬링 등 일부종목은 지난 1월 16일(월)부터 사전경기로 진행되었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선전을 위한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지난 1월 5일(목)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대표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필승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결단식에는 서병수 회장을 비롯하여 시체육회 출전종목단체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미현 총감독(시체육회 사무처장)의 참가현황 보고에 이어, 선수단기 수여,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 전달, 응원메세지 전달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병수 회장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계체전의 선전을 위하여 노력한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부산스키협회 윤설호 전무이사는 "연간훈련을 통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선수들과 올 시즌 초, 강원도 대관령 스키장에서 설상적응 운동부터 스키적응 훈련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선수들은 체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실업팀이 생겨 출전 인원수에 비해 득점은 상향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메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동계올림픽은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어린 꿈나무부터 엘리트 동계체육인까지 인식이 같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은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시범종목) 6종목에 250여명이 참가하여 전국 시·도 대표선수들과 열띤 경쟁을 펼쳤다. 주요 선수로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김마그

너스(협성르네상스)선수

와, 부산 빙상 쇼트트랙

종목 최초로 국가대표

에 발탁되어 지난

12월 개최된 ISU

쇼트트랙 월드컵에

서 금메달을 획득

한 김건희(만덕고1)

선수 그리고

스키 알파인 종목에

서 4관왕이 기대되는

강영서(한국체대1) 선수 등

부산 대표선수단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여

부산 동계종목의 위상을 제고 할 것으로 기

대를 모았다.



19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12일(일) 폐막한 가운데 부산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로 종합점수 471.5점을 기록하여 목표했던 11년 연속 종합 순위 5위를 달성했다. 부산대표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살펴보자.

아름다운 질주



스키 크로스컨트리 김마그너스 선수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의 김마그너스(협성르네상스) 선수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프리 15km 경기에서 38분48초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 3관왕이 기대됐던 김마그너스는 클래식 10km와 복합에서는 아쉬운 은메달을 따냈다.

김마그너스 선수에게는 이번 대회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의 전초전 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시험 무대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동계유스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김마그너스 선수는 2017 서울국제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20



왼쪽부터) 부산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부산광역시 안종일 건강체육국장, 스키크로스컨트리 김마그너스 선수,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 부산시스키협회 김태순 회장



스키알파인 강영서 선수

21

매년 부산 알파인 스키의 기대를 받고 자랑스럽게 전국 대회에 출전해 온 강영서 선수는 스키의 불모지라 불리우고 제대로 된 국제 규격의 스키장이 없는 부산에서 연습을 매진했다. 지난해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 대표로 출전하여 알파인 스키 여고부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완주에 성공하며 한국 스키의 저력을 보여줬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노력 덕분에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영서 선수는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알파인스키 4관왕을 기대하였지만, 주목목인 회전과 복합에서 우승해 2관왕을 차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도 유력하게 되었다.

강영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 한국 선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며 ‘이곳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계속 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태순 부산시스키협회장은 “부산의 스키 환경은 열악하지만 전국 체육대회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유는 부산시스키 협회를 비롯하여 지역스키계가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제공





빙상 쇼트트랙 김건희 선수

빙상쇼트트랙 국가대표인 김건희 선수는 쇼트트랙 여고부 3000m에서 5분 58초 238의 기록과 1500m에서 2분 58초 20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번 동계체육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현재 김건희 선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빙상 불모지인 부산에서 태극마크를 다는 쾌거를 일궈 낸 주인공이자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태극마크를 단 쇼트트랙 선수로는 김건희 선수가 유일하다.

부산의 경우 국제 규격의 빙상장은 하나이고, 시민들과 같이 사용하며 훈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점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스타 선수이기도 하다.

부산시빙상경기연맹 김경자 회장은 "김건희 선수는 코너링과 체력이 뛰어나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전했다.





피겨스케이팅 이동혁 선수

‘부산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인 이동혁 선수는 사전 경기 피겨 남중부 싱글 C조 경기에서 총점 73.9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 점수를 경신하였으며 지난해 피겨 남초부 싱글 D조에 출전하여 총점 33.34를 얻어 정상에 올랐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이동혁 선수는 “더블 악셀 기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훈련을 열심히 하여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정술 코치는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에서 감정을 잘 끌어올려 훌륭한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주무기인 이동혁 선수입니다. 부산에서는 상대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자주 출전하여 경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아이스하키 남자초등부팀

부산대표로 출전한 레드라이언 팀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대회 준준결승에서 경기대표로 출전한 수원 리틀이글스에 0대7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아이스하키팀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컬링 부산외고 컬링팀

고등부 컬링팀인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여자 선수들인 임예진(19) 선수를 비롯하여 이은지(19) · 하유정(18) · 이도은(18) · 조은정(18) 선수까지 5명이 부산대표로 출전했다.

총 5명의 선수가 각각 두 번씩 스톤을 던져 티에 가까운 스톤마다 1점씩 얻어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상대 팀 스톤을 밀어내거나 자기 팀 스톤을 원 중심 가까이 볼일 수도 있다.

부산외고 여자 컬링팀은 2000년 창단해 이듬해 첫 동계체전 정식종목에서 여고부 정상에 올랐다. 이규헌 부산시컬링협회 전무이사는 “다른 종목 선수들의 연습과 훈련도 이뤄지는 북구 빙상장에서 제대로 된 컬링 연습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종목 특성상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제때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라며 장비를 모두 수입하다 보니 스톤, 스틱, 컬링화 등 장비들을 한꺼번에 몇 개씩만 교체해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전했다.



Curling





바이애슬론 안성은 선수

바이애슬론 종목의 부산유일 여자 고등부 안성은 선수(청심국제고3)는 올해로 4년차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라는 스키 종목의 마라톤 방식에 사격을 접목한 경기이다.

안선수는 “저는 체력적인 면에서는 약점이 분명하지만 사격에서 집중하여 좋은성적을 내기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향후 올림픽 무대를 밟고 스포츠 외교로도 일조하고 싶습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주 부산바이애슬론 코치는 “부산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지난 2월 23일(목)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 출전 입상자(팀)으로는 개인종목은 금메달 입상 지도자 및 소속단체장이며 단체종목은 입상팀 지도자 및 소속단체장을 대상으로 수상하였다. 먼저 개인종목 수상자로는 빙상 쇼트트랙 김건희선수(만덕고), 빙상 피겨 이동혁선수(동양중), 스키 알파인 강영서선수(한국체대), 스키 크로스컨트리 김마그너스 선수(협성르네상스), 스키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김주안선수(배산초)이며, 단체종목 수상자는 컬링 남자 일반부(부산컬링협회)이다. 이날의 MVP는 스키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김주안선수(배산초), 빙상 쇼트트랙 김건희선수(만덕고), 스키 알파인 강영서선수(한국체대)로 선정되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회를 치른 부산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김마그너스 · 김건희 · 강영서 선수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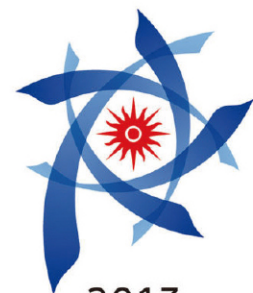
아시아의 45개 국가와 지역이 가맹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lympic Council Asia)가 아시아 지역에서 동계 스포츠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열린 종합 국제 스포츠 대회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는 지난 2월 19일(일)부터 2월 26일(일)까지 삿포로시 · 오비히로시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제8회를 맞이하는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아시아의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애슬리트(Athlete)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그 중 동계체육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던 부산 대표로 출전한 김마그너스 · 김건희 · 강영서 선수도 좋은 기량을 발휘하였다.

김마그너스 선수는 삿포로의 시라하타야마 오픈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km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 결선에서 3분 11초 4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 쑨창하이(중국)와 100분의 1초 차이도 나지 않는 0.01초의 투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크로스컨트리 남자부에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김마그너스 선수가 처음이었으므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충분하였다.

한편, 일본 삿포로 마코마나이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계주 여자 3000m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이날 심석희 · 최민정 · 김지유 · 노도희 선수가 열띤 경기를 치렀으며, 전날까지 예선과 준결승에 나섰던 김건희 선수도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부산연고 선수인 스키 알파인의 강영서 선수는 스키 대회전 여자부에서 2분 32초 3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스키 회전 여자부에서도 1분 45초 7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하여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2017
冬季アジア札幌大会
SAPPORO
ASIAN WINTER GAMES

Beyond your ambitions

'선수과 시민 개개인이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끈다. 겨울의 감동을 공유하고 더 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다.

시초

1986년에 삿포로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회 대회는 비교적 동계 스포츠에 익숙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열린 소규모 대회였지만, 현재는 아시아 전역의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장하여 OCA가 지향하는 아시아 지역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큰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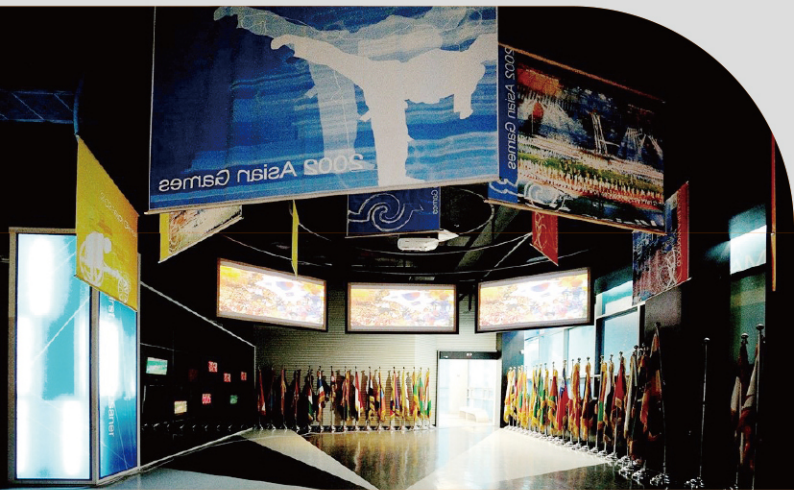


28

부산스포츠의 불꽃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은 19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기념자료와 기타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002 아시아경기대회 · 월드컵대회 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어린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에게는 그 당시의 열기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장이자, 부산체육 역사의 장이 된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이하 기념전시관). 부산체육은 이곳의 활성화를 통해 부산 스포츠의 불꽃을 이어가고 있다.



기념전시관 건립배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에 2008년 개관한 체육 박물관으로 1997년 이후 부산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 경기에 대한 관련 자료 1,800여종과 기록물 6,000여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전시관 추진배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이미 끝난 직후부터 부산시체육회를 중심으로 부산시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이르렀다. 2003년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사직 야구장 뒤 1만 3119㎡의 부지에 시비와 체육회 기금 등 199억 원을 들여 체육회관을 건립하였고, 그 1층에 기념전시관을 조성하였다. 2008년 7월 25일에 부산시체육회관 개관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념전시관 운영방향

부산체육은 기념전시관을 통해, 2002년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등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의 소개와 함께 부산의 스포츠 역사를 재조명해보며 부산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49-6 부산시체육회관 1층
- 관람시간 | 9:00~18:00
(입장마감시간 17:30)
- 입 장 료 | 무료
- 주차시설 | 지하1층, 지상1층 주차장 이용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기념전시관 내부구성

제1전시실 승리의 점화 (월드컵관, 면적 약 150㎡)



제1전시실은 2002년 월드컵의 주제 전시실로 기념메달·주화, 선수 유니폼·사인볼 등 주요 전시물, 월드컵 및 축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전시실 하나된 승리의 불꽃
(아시아게임관, 면적 약 140㎡)



제3전시실 하나된 승리의 불꽃
(아시아게임관, 면적 약 195㎡)



제2·3전시실은 2002년 개최된 아시안게임을 주제로 대회 준비부터 출전사, 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에피소드 및 참가 18개국 기념패와 경기 관련 유니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실 정신의 불꽃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실, 면적 약 195㎡)



제4전시실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함께 포토존, 게임을 통해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전시실 스포츠의 영광
(기획전시실, 면적 약 195㎡)



제5전시실은 국제대회 관련 여러 기념물과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대한 염원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 관람을 위한 90석 규모의 영상실도 마련되어 있다.



ZOOM IN 01

제5차 이사회



30

지난 1월 24일(화)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가 개최돼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계획 보고 등 주요업무 보고와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선(안) 등 현안 심의가 있었다.

심의 안건으로는 본회 임원 중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 인사를 임원으로 보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선(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2016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안)과 2017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어서 2008년 건립되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시체육회관의 노후화된 개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부산광역시 대표선수 및 이용회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사용 승인(안)을 심의하였으며, 본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안) 등 주요 사항을 승인받기 위해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조직 정비에 있어

통합관련 업무가 전혀 추진되지 아니하고, 집행부 부재 및 사무국 비활동 등 정상적인 통합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단체를 제명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제명(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실업팀 창단 등으로 체육관련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체육회에서 '아이디어뱅크'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사회가 마무리되었다.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31



지난 2월 23일(목)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서병수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종목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결과 보고,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 현황 보고, 회원종목단체 탈퇴 현황 보고, 회원종목단체 제명 현황 보고 등의 발표와 함께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사항 등이 이어졌다.

이어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97회 전국동계체전, 제45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과 보고와 부산시

체육회 실업팀이 창단된 배구, 검도, 빙상 종목, 지난 6위를 달성하였던 하계체전과 5위를 달성하였던 동계체전, 35개 종목과 동호인 1,400여명이 참가한 2016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의 생활체육 보급, 84개교·지도자51명·선수211명 지원이 된 꿈나무 학교(팀)육성, 육상,수영,체조 종목 챌린지대회, 글로벌 스포츠스타선수 육성, 비인기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9개의 대회 개최 지원, 19개의 대회 참가 지원, 부산-후쿠오카 청소년교류 및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추진 등 에 대한 주요실적 보고로 이어졌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매번 큰 성과를 내고있는 부산체육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문지도력을 갖춘 체육교사를 해당종목 육성학교로 배정하고 꿈나무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이 배려와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WARD

부산체육고등학교 졸업식 우하람(다이빙) 표창장 수여



32



지난 2월 14일(화) 부산체육고등학교 및 부산체육중학교의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2016학년도 부산체육고등학교 졸업 대상자 중 최우수 선수인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산대표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우하람 선수는 지난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제14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고, 제31회 리우올림픽에도 출전한 바 있다. 이날 우선수는 "먼저, 제일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다이빙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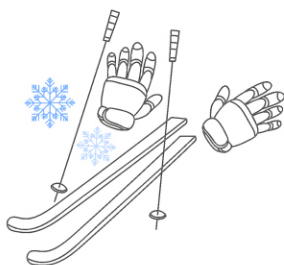
은 적은 인원이지만, 후배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일 교장은 "절영 바다의 푸른 물빛에서 새해의 기운을 느끼며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애써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같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미래 사회를 짊어질 주인공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이날 행사는 내빈축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졸업식 노래 제창, 교가 제창, 폐식사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설원을 달리다 청소년 스키교실



지난 2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에서 「2017 청소년 스키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스키교실에는 남·여 중학생 60명이 참가해 2박 3일간의 단체 일정을 함께 즐겼다.



부산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스키교실은 지역 특성상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기 힘든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자리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스키강습 패키지과 장비 대여를 비롯한 리프트 사용, 초급자의 현지 스키 스쿨입소를 통한 기본 기술 습득·강습 등 알차게 배웠으며 합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건강한 청소년 상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집중 스키강습으로 실력 UP! 만족도 UP!

이날 스키교실에는 초급 학생부터 중급 이상의 학생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했다. 스키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업으로 지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3일간의 집중적인 스키강습을 통해 실력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스키에 대한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그런가하면, “만족감은 물론 즐거움까지 배가되는 스키교실에 내년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유스키 시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스키교실은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모험심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겨울철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스포츠의 장으로써 그 입지를 탄탄히 넓혀가고 있다.



2017년 부산스포츠클럽 진천선수촌 방문

• 일 시 : 1. 12.(목) • 장 소 : 진천선수촌 • 주 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세계 스포츠의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다 부산스포츠클럽, 진천선수촌 방문

지난 1월 12일(목) 시체육회에서는 부산스포츠클럽 회원(수영, 수영영재, 육상, 육상영재, 체조영재) 60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했다. 전문선수 발굴·육성의 다변화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산스포츠클럽 학생들의 진천선수촌 방문은 선수를 꿈꾸며 스포츠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새로운 요람

태릉선수촌에 이어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에 설립된 진천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시설 및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기존에 건립된 태릉선수촌은 노후된 시설과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 있어서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진천선수촌을 짓게 된 것이다. 현재 진천선수촌은 59만 4,711m² 면적에 사격·수영 등 25개 종목·최대 800명의 선수가 이용할 계획이다.

진천선수촌 측은 “한계에 도전하는 끝없는 노력”의 산실과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새로운 요람”을 성장 지표로 두고 부산스포츠클럽 회원들에게 실내사격장, 수영센터,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클레이 사격장, 육상장, 테니스·정구장, 야구·소프트볼장 등 “최적의 시설로 최상의 훈련”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선수촌을 소개했다. 이로써 부산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세계적인 선수촌으로 도약하는 선수촌의 방향과 “선수중심인 종합훈련장”을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스포츠 리더를 육성하는 체육시설 기대

현재 진천선수촌의 지원시설로는 화랑관(선수숙소, 선수식당, 대형목욕실, 사우나), 체력훈련장(사무실, 샤워실, 직원식당, 기구보관실, 자료보관실), 다목적 체육관·선수회관(강당, 체육관, 도서관, 어학실습실,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당구장)등으로 마련 되어있다.

특히, 스포츠 과학기술 도입으로 최적의 훈련환경을 조성하는 집중훈련영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 계획으로 훈련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복합훈련영역,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중심생활영역 및 지원시설영역,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옥외훈련영역으로 건립되었다.

이는 향후 “세계 스포츠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세계 스포츠의 리더”라고 불리며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진천선수촌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진천선수촌은 향후 37개 종목으로 증설하여 국가대표 훈련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1,100여명의 선수를 수용 할 계획이며, 이러한 2단계 선수촌 사업이 준공되면 매머드급 체육시설로 거듭나게 된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더 큰 성장을 위해’ 꿈나무체능단



지난 1월 16일(월) 꿈나무체능단의 개학식이 진행되었다.

2주 방학기간 동안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은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월 23일(목)에는 2016학년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의 수료 및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다음날인 24일(금)에는 신규단원 및 재원생들을 위한 꿈나무체능단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을 학부모에게 제시하고, 질의응답과 학부모님들의 바라는 점 등을 개진하는 등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36

‘건강한 방학을 위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월)부터 수영, 체육 프로그램 등 7개 종목, 16개 반을 개설하여 4주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 내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충전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출입문 교체 및 LED전광판 설치



부산국민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로비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다. 또한 노약자들도 출입을 쉽게 하고 회원들이 접수기간 및 주요 일정 등 알아보기 쉽도록 센터 입구와 접수처 상단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수를 하였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북구국민체육센터 4년 연속 ‘국민체력100사업’ 선정



<http://nfa.kspo.or.kr>

국민체력100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내 몸에 꼭 맞는 **운동처방** 무료로 받으세요!

북구체력인증센터



전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체육복지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영·스포츠도전을 통해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체력인증검사 절차

①신청(국민체력100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②체력인증센터 방문
③체력측정 ④체력평가 ⑤운동처방 ⑥체력관리지침

※ 체력평가 결과 1, 2, 3등급은 **국가공인 체력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북구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3월2일(목)부터 12월31일(일)까지 운영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7년 국민체력100사업에 북구체력인증센터가 선정, 국비 1억6천300만원을 지원받아 10개월간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한 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체육복지 국책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북구체력인증센터는 체력측정 인원과 체력증진교실 운영에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여 지난 2016년 전국 32개 체력인증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종합 5위, 체력측정 목표달성율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참여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http://nfa.sports.re.kr>)

관련문의

북구체력인증센터
(☎ 051-362-7008)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초등학생대상 어린이 '힙합댄스교실' 개설



지난 3월,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힙합댄스 교실을 개설 운영 중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체 발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학업부담으로 신체 발육부진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힙합댄스교실은 신나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점을 자극하는 신체적성운동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게 된다.

참여신청 북구국민체육센터(051-365-7070)



'2017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이어서 센터 수영장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생존수영(안전)교육을 2017학년도 운영을 대비하여 북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대상 학교는 금명초, 명진초, 명덕초, 와석초, 용수초, 학산초 등으로 협의 중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홍보 및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 대처 및 극복능력 체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수영실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군체육회 소식

영도구체육회

‘임원진회의’ 개최



지난 2월 6일(월) 일차로왕족발에서 영도구체육회수석부회장, 임원진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임원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임원진회의에서는 2016년도 결산보고와 2017년도 예산·사업계획(안), 영도구체육회 규정 개정(안), 태권도협회 정회원승격의건, 공수도·우수 종목 준회원 단체가입의 건 등을 논의하였으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 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13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지난 2월 12(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17년 부산시탁구협회에 등록된 부산진구클럽 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혼합복식에서는 우승-김성호, 이환숙(매직), 준우승-구자현, 김진욱(다이아몬드), 공동3위-김부영, 김영숙(토네이도), 김재희, 양문숙(다이아몬드) 팀이 차지하였으며, 남자단체전에서는 우승-하민호 탁구클럽, 알맹이A, 공동3위-다이아몬드B, 삼성탁구클럽 팀이 차지하였다.

한편, 여자단체전에서는 우승-레알TTC, 해마루, 공동3위-TNT, 럭키A 팀이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쌓아온 각자의 기량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종 탁구대회 입상 경험이 많은 동호인들의 대다수가 참여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동래구체육회

‘(사)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2일(수) 더파티에서 ‘(사)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동래구체육회 회장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남구체육회

‘어린이 체능교실’ 개최



지난 1월17일(화) 경주 서라벌승마클럽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이 개최되었다. 이는 생활체육 실천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소통과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 체련교실’ 개최



이어서 지난 1월 20일(금) 경주 블루원워터파크에서 남구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체련교실’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바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정기이사회’ 개최



이어서 지난 2월 16일(목)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에서 2017년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종철 회장을 비롯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감사 결과 보고 등 2건의 보고사항과 2016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17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 전원은 올해 남구체육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어서 지난 2월 21일(화)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자체감사 보고 후, 2016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체육진흥 발전 방향에 대해서로 논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21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지난 1월 11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5일간 장산인조잔디구장 및 영산대학교에서 ‘제21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교류의 장을 열었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선진체육도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 22개 초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하여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결과는 우승 원주태장초등학교, 준우승 제주하귀초등학교, 공동3위 창원상남초등학교·대전중앙초등학교가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테니스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1월 14일(토) 남산시장 횃집에서 “금정구테니스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정구테니스협회 임원 및 클럽별 회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배드민턴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8일(토) 골든웨딩타운에서 “금정구배드민턴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계획을 내세우며 협회의 발전과 새로운 임원진들의 추대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4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지난 2월 19일(일)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명성치과와 함께하는 제4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그간 동호인들의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친목도모의 장이 되었다.

‘제15대 금정구축구협회장 취임식’ 개최

지난 2월 24일(금)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5대 금정구축구협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순택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금정구 축구협회의 발전을 기대하여 본다.

‘금정구 한마음리그 친선축구대회’ 개최



지난 2월 26일(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구장과 오륜구장에서 “금정구 한마음리그 친선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10개팀이 리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정구 축구 동호인들의 기량과 그 동안의 쌓아왔던 멋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6일(목) 연제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회장, 이사 등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심의 의결 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심의 의결 건과 종목별협회 규약 및 단체 인준 승인 의결 건을 상정하였다.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4일(금) 연제구청 소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감사 등 15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구·군체육회 소식

심의 의결 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건을 상정하였다.



‘태권도협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0(금) 해초초밥에서 대의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결산 및 감사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및 보고로 진행되었다.

‘족구협회 1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5일(수) 사무정에서 대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협회 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제구 족구협회의 발전과 족구동호인들의 활성화 방향 및 동호인 클럽 증대에 목적을 두고 올해에도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구협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5일(수) 연제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대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제구 축구협회의 2017년 축구협회 회장선출 및 축구협회 발전을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수영구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6일(목) 아쿠아펠리스에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수영구체육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내용으로는 2016년 수영구체육회 결산 및 사업 결과 보고와 함께 2017년 수영구체육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상구체육회

‘어린이스키체능교실 및 청소년스키체련교실’ 개최



지난 1월 19일(목) 양산 에덴밸리스키장에서 사상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스키체능교실 및 청소년스키체련교실이 개최되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스키강습 및 자유스키 모두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 강사 지도아래 기초부터 강습이 이루어져 안전하게 스키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단체생활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배려심과 협동심을 키우는 계기를 전했다.



회원종목 파노라마

‘2017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연합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지난 2월 28일(화) 아미산에서 ‘2017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연합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안건으로는 연합회 2016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 등으로 진행되었다. 명예회장(송규정 부산시체육회 부회장), 회장(박용수 부산시정구협회장), 수석부회장(최용태 부산시세탁타크로협회장), 부회장(양재생 부산시탁구협회장, 김경자 부산시빙상연맹회장, 김영철 부산시테니스협회장, 이균태 부산시핸드볼협회장), 사무총장(김명진 부산시철인3종협회장), 감사(조무성 부산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이루어진 회원종목단체장연합회는 종목단체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을 도모하며, 매년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및 유공자 시상식 등 각종 체육회 행사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장연합회는 지난해 리우올림픽에 참가하여 부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부산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부산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회원종목 파노라마

회원종목단체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

지난 1월부터 2월경 진행된 부산광역시회원종목단체는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정기총회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정기총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농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바둑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세일링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세일링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산시정 정보자료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News Briefing

정부 부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위해 모였다

제1차 범정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담당관 회의 개최 (2016.12.0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범정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최근 각 부처에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담당관 지정(부·처·위원회 등 28개 기관)을 요청했고,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화답함에 따라 첫 번째 담당관 회의를 조속하게 개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 조직위원회, 강원도로부터 올림픽·패럴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계획과 의견을 공유했다. 각 부처 담당관들은 문화·환경·아이시티(CT) 올림픽 실현과 교통, 출입국, 보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위원회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7년 대회 운영 관련 예산을 1,6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유동훈 제2차관은 전 부처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재정, 대회 운영,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평창 대회를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48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1. 13.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정책협의회 (2017.01.1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3일(금) 교육부, 대한체육회,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부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상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체부 제2차관,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참석 격려 (2017.01.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은 지난 1월 18일(수)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17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유동훈 제2차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포츠가 가진 힘으로 지금의 위기와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59.5%
생활체육 참여,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

규칙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시간 부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은 2014년에 과반(54.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참여율은 59.5%를 기록했다.

10대의 생활체육 참여 14.1%포인트 증가, 특히 여학생의 참여 19.7%포인트 상승

10대의 63.1%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해 다른 연령층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0대 이상 참여율은 55.3%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
10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

70대 이상 참여율은 10대 다음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은퇴기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이나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조', '걷기' 등의 효과로 추측된다.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확대

'한 달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응답자(70.5%)'가 참여하는 체육 종목은 '걷기'(35.6%), '등산'(16.7%), '보디빌딩'(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부 중심의 경기 종목을 위주로 하는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체조, 걷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긍정적인 변화 때문에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점심시간, 퇴근 후 체육 참여 증가 등
'가정 및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체육 참여' 추세

체육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퇴근 후 '저녁 6~10시'의 참여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점심시간인 '12시~오후 2시'의 참여율은 4.0%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과 대비해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개인의 건강이나 취미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시간 부족'
'시설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15.9%)를 대상으로 해당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은 '시간 부족'(64.6%)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관심 부족'(37.7%), '체육 시설 접근성 낮음'(23.6%), '비용 부담'(17.3%) 등의 원인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육 참여가 성인기 이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방안 필요

현재 생활체육 참여 정책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특히 청소년기와 은퇴기 이후 세대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인기 생활체육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정 정보자료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News Briefing

17개 시도, 평창동계올림픽 관광 자원화 방안 논의

2017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 (2017.01.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8일(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17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관광정책실장, 체육협력관 및 17개 시·도 관광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국내관광의 경향을 살피고 2017년 문체부의 지역 관광 발전 및 주요 관광정책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황 봉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이들을 지속 가능한 관광유산으로 남기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동훈 제2차관은 "저성장시대에서의 관광에는 성장의 물꼬와 국민들의 삶의 활력소로서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성화 봉송 행사 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 출범

특별예산 337억 원 등 전폭 지원키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단체, 평창조직위, 강원도 등 민관이 참여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메달 20개 '세계 4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력 향상에 총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은 7종목 13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메달 20개 획득, 종합순위 4위 달성을 목표로 삼고, 남은 1년여 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합심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비 등 평창동계올림픽 특별 예산으로 '17년에는 총 3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종목별 전담팀(장비·기술·물리치료 등 14억 4천만 원)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32억 3천만 원), 외국인 코치 영입(7종목 18명), 동계 장비 지원(32억 원) 등 국가대표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그리고 국내에 부족한 동계스포츠전문가를 배출해 인적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동계종목 대외협력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스케이트 장비 담당, 스키 왁싱 전문가, 빙질 관리 전문가 등 해외 최정상 전문 인력을 영입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초부터 강릉스피드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6개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선수들이 사전 적응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요구 수렴 및 종목별 맞춤형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발굴해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체육계가 합심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선수들이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프로그램

www.sports.busan.kr

참가신청안내 TEL 051.500.1300



어린이 배드민턴교실 프로그램

모집기간 | 매 짝수달 15일부터 선착순
모집대상 | 초등학교

프로그램	모집인원	시 간	수강료(월)	비 고
어 린 이 배드민턴	20명	(고학년) 09:00 ~ 10:30 (저학년) 10:30 ~ 12:00	27,500원	수영장3층 (토요일)

※ 정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으며, 폐강 시 환불해 드립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

이 용 일 | 월요일 ~ 금요일 수업 (교사별)
레 스 일 | 월, 화, 목, 금 (수요일은 자율운동) 개인별 일주일 2회 레슨
문의전화 | 051) 500-7992

구 분	모집인원	시간 (각90분)	정원	수강료 (2개월)
월 ~ 금	1	07:30 ~ 09:00	40	78,000
	2	07:30 ~ 09:00	40	78,000
	3	07:30 ~ 09:00	40	78,000
	4	07:30 ~ 09:00	40	78,000

※ 정원에 미달한 수업(교사)은 수시모집 중입니다.



성인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안내

모집기간 | 매 짝수달 15일부터 선착순
모집대상 | 부산시민 누구나

프로그램	모집인원	시 간	수강료(월)	비 고
탁 구	25명	09:00 ~ 10:00 (초급) 10:10 ~ 11:10 11:20 ~ 12:20 12:30 ~ 13:30	무료(2개월) 30,000원 30,000원 30,000원	수영장3층(월~금) 초급 선착순 모집
배드민턴	35명	08:50 ~ 09:50 10:00 ~ 11:00 11:00 ~ 12:00 (초급) 12:00 ~ 13:00	30,000원 30,000원 무료(2개월) 30,000원	수영장3층(월~금) 초급 선착순 모집
배드민턴	40명	08:30 ~ 09:40 09:40 ~ 10:50 10:50 ~ 12:00 12:00 ~ 13:10	3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실내체육관 보조B구장(월~금)
배드민턴	25명	10:00 ~ 11:00 11:00 ~ 12:00	40,000원 40,000원	강서체육관(화~금)
에어로빅	25명	11:00 ~ 12:00 (초급)	무료(2개월)	주경기장 89호 (월, 화, 수, 금) 초급 선착순 모집
국학기공	35명	09:50 ~ 10:50 11:00 ~ 12:00 (초급)	22,000원 무료(2개월)	주경기장 40호 (월, 수, 금) 초급 선착순 모집
요 가	35명	13:50 ~ 14:50 15:00 ~ 16:00 (초급)	22,000원 무료(2개월)	주경기장 40호 (월, 수, 금) 초급 선착순 모집
테 니 스	25명	11:00 ~ 12:00	무료(2개월)	사직실내테니스장 (월~금)



헬스장 프로그램 안내

이 용 일 | 월 ~ 금요일 06:00 ~ 22:00 토요일 06:00 ~ 18:00
휴 관 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전화 | 051) 500-7992~3 (담당 : 박대현)

구 분	프로그램	이용요금	할인율	이용시간
헬스 주 6일	1개월	48,000		월~금 06:00 ~ 22:00 토요일 06:00 ~ 18:00
	3개월	129,600	10% 할인	일, 공휴일 휴무

※ 정원에 미달한 수업(교사)은 수시모집 중입니다.



GX 프로그램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이용시간
09:30 ~ 10:20	에어로빅	파워로빅	에어로빅	파워로빅	에어로빅	월, 수, 금 40,000원
10:20 ~ 11:10	줌바로빅	짐스틱	줌바로빅	짐스틱	줌바로빅	
11:20 ~ 12:00		필라테스		필라테스		
19:00 ~ 19:50	다이어트 댄스	태극권 (신설)	다이어트 댄스	태극권 (신설)	다이어트 댄스	화, 목 30,000원
20:00 ~ 20:50	다이어트 댄스	태극권 (신설)	다이어트 댄스	태극권 (신설)	다이어트 댄스	

※ 짐스틱 48,000원 / 필라테스 : 40,000원 / 태극권 : 50,000원



농구 프로그램

접수문의 | 051) 500-7992
수업문의 | 배호철 010-4528-2307

교육일	교시	시간 (각90분)	정원	수강료 (개월)	대상
매주 토요일	A	08:30 ~ 10:00	30	1개월	중학생
	B	10:00 ~ 11:30	30	3개월	초등학생

※ 정원에 미달한 수업(교사)은 수시모집 중입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www.bnsc.or.kr

참가신청안내 TEL 051.243.5959



수영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 금	06:00~06:50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이상
생활수영	A반 월 ~ 금 B반 월 ~ 금	07:00~07:50	성 인 67,100 노 인 52,800 청소년 60,500	청소년 이상
어머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09:00~09:50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여성
웰빙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0:00~10: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 ~ 금	11:00~11:50	성 인 67,100 노 인 52,800	
성인수영	A반 월, 수, 금	14:00~14:50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여성
실버수영	화, 목(토)		44,000	65세 이상
성인수영	B반 월, 수, 금	15:00~15:50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누구나
돌고래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토)	16:00~16:50	39,600 33,000	초1~6년 7세~초4년
하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토)	17:00~17:50	39,600 33,000	초1~6년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18:00~18:50	성 인 51,700 노 인 48,400	성인 누구나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 ~ 금	19:00~19:50 20:00~20:50	성 인 67,100 청소년 60,500 노 인 52,800	청소년 이상
야간수영		21:00~21:50	성 인 67,100 노 인 52,800	성인 누구나
주말수영(배영이상)	토	15:00~15:50	25,300	초2~6년
아쿠아로빅	A반 화, 목, 토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토 E반 월, 수, 금 F반 화, 목, 토	12:00~12:50 15:00~15: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8:00~18:50	성 인 60,500 노 인 52,800	성인 여성
월자유수영	A반 월 ~ 금 B반 월 ~ 금 C반 월 ~ 금 E반 월 ~ 금 F반 월 ~ 금	06:00~07:30 08:00~09:30 10:00~11:30 17:00~18:30 19:00~20:30	성 인 53,900 노 인 33,000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 실버수영, 돌고래B, 하마B, 아쿠아로는 토요일 자유수영으로 대체



생활체육 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헬스 교실	월 ~ 토	06:00~22:00 토 16:50까지	성 인 47,300 노 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배드민턴	A반 월 ~ 목 B반 (강습) C반 (강습) D반 (강습) E반 (강습) I반 (강습) J반 (강습) K반 (강습) L반 (강습)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 인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탁구교실	A반 월 ~ 토 B반 월 ~ 토 C반 월 ~ 토	18:00~18:50 19:00~19:50 20:00~20:50	성 인 41,800 노 인 38,500	성인 이상
어린이배드민턴	월, 수, 금 화, 목	16:00~16:50 16:00~16:50	38,500 33,000	초3~6년 초1~6년
농구교실	A반 월, 수, 금 B반 월, 수, 금	17:00~17:50	초 등 38,500 청소년 44,000	초1~6년
필라테스	B반 화, 목, 토 C반 화, 목, 토 G반 월, 수, 금 D반 화, 목, 토 F반 월, 수, 금 H반 월, 수, 금 A반 월, 수, 금 E반 월, 수, 금	06:30~07:20 09:00~09:5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 인 50,600 청소년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실내 축구	화, 목	15:00~15:50	38,500	7세~초3년
발레교실	화, 목	16:00~16:50	33,000	5세~7세
음악놀이	화, 목	17:00~17:50	38,500	초등학생
어린이발리댄스	월, 수, 금	17:00~17:50	38,500	7세 ~ 초등생
에어로빅	A반 월, 수, 금 B반 월 ~ 금	10:00~10:50 18:00~18:50	50,600 51,700	성인 누구나
발리댄스	월, 수, 금	16:00~16:50	성 인 50,600 노 인 38,500	성인 누구나
스포츠댄스	초급 화, 목 중급 화, 목	19:00~19:50 20:00~21:30	성 인 39,600 노 인 38,500 성 인 44,6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52



요가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토	06:00~06:50 07:00~07:50 08:00~08:50		
웰빙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0:00~10:50	주2일반 38,500	
생활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1:00~11:50 14:00~14:50 15:10~16:00		
아로마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화, 목, 토	16:00~16:50 17:10~18:00	주3일반 50,600 노 인 38,500 청소년 45,100	청소년 이상
직장인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19:00~19:50 15:00~15:50		



문화프로그램

재료 및 부가세 별도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요가	토	14:00~14:50	30,000	초등~중등
바둑교실	A반 토 B반 토	14:00~14:50 15:00~15:50	30,000	초1~초6
신나는 과학교실	금	15:10~16:00	30,000	6~초3
동화구연	월	15:10~16:00	25,000	5~7세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15:10~16:00	30,000	6~7세
지니맥	A반 수 B반 수	15:10~16:00 16:10~17:00	30,000	유치부

수영프로그램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굿모닝	06:00 ~ 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 ~ 07:50	초급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 ~ 08: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돌고래	09:00 ~ 09:50	초급	초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 ~ 10:50	초급	중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 ~ 11:50	초급	고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거북이	15:00 ~ 15:50	초급	연수 (40명)
		중급	
		고급	
		연수	
	17:00 ~ 17: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굿나잇	19:00 ~ 19: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0:00 ~ 2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 ~ 21: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아쿠아로빅	12:00 ~ 12:50	초급	50명
	14:00 ~ 14:50	중급	80명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어린이 수영교실	12:00 ~ 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 (25명)
		어린이종합반	
	14:00 ~ 14:50	유아(월, 수, 금)	
		초급	
	17:00 ~ 17:50	중급	
		고급	
	18:00 ~ 18:50	초급	
		고급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주말수영	토, 일 11:00 ~ 11:50	주2회	주2회
핀수영	토, 일 09:00 ~ 09:50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8,000원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참 가 일
(월)자유수영	1부 08:00 ~ 08:50	월 ~ 금 (주5회)
	2부 12:00 ~ 13:50	
	3부 18:00 ~ 18:5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 일	08:00 ~ 08:50 12:00 ~ 13:50 18:00 ~ 18:50
	주말	1부 09:00 ~ 11:50 2부 13:00 ~ 17:50
		12:00 ~ 13:00 수질정화시간 (입장불가)
	회 원	비 회 원
이용요금	성 인	2,3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200원

스튜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타바타 (월, 수, 금)	06:00 ~ 06:50	25명	성 인 50,000원
타바타 (화, 목)	06:00 ~ 06:50		성 인 40,000원
요가 (월 ~ 금)	07:00 ~ 07:50		성 인 57,000원
요가 (월 ~ 금)	19:00 ~ 19:50		청소년 50,000원
중바로빅 (월, 수, 금)	09:00 ~ 09:50		성 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 목)	09:00 ~ 09:50		성 인 42,000원
파워로빅 (월 ~ 금)	10:00 ~ 10:50		성 인 57,000원
파워로빅 (월 ~ 금)	11:00 ~ 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로빅 (월 ~ 금)	20:00 ~ 20:50		성 인 57,000원
파워로빅 (월 ~ 금)	21:00 ~ 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프로그램	강습 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 ~ 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 ~ 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 ~ 15: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 ~ 16:50	월, 화, 목	30	30,000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정 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 ~ 금)	06:30 ~ 07:50	40	30,000원
	19:00 ~ 20:20		
	20:30 ~ 21:50		

헬스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 ~ 21:50	성 인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 ~ 17:50	청소년 41,000원

신규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 시간	정 원	(월)회비
어린이 힙합댄스 (월, 수, 금)	14:30 ~ 14:50	25	40,000원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 ※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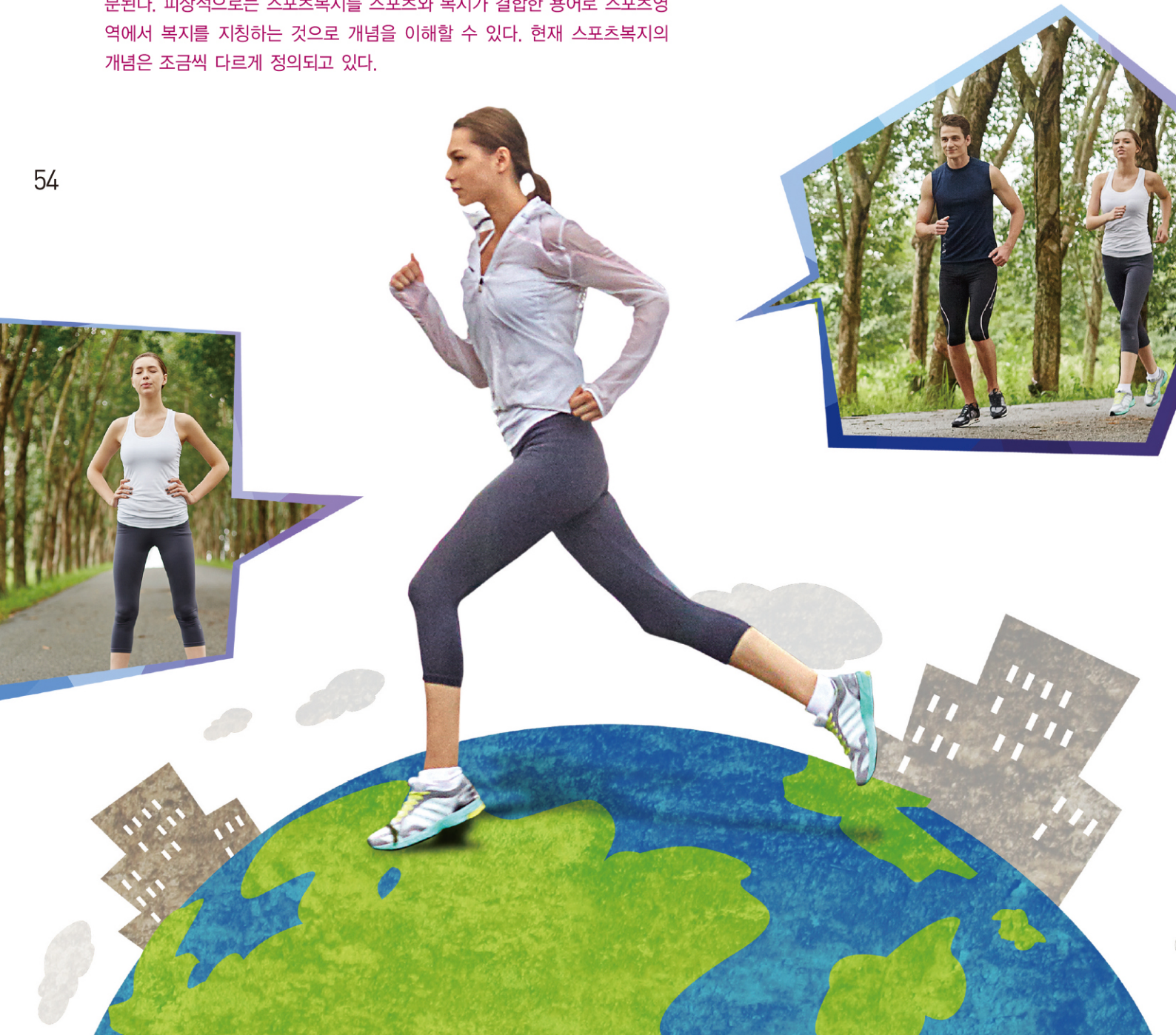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초회원 매월21일 ~ 23일 신규회원 매월24일 ~ 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계의 스포츠복지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 건강문제, 건전한 여가 문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스포츠는 국민들의 삶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취약계층 대상으로 스포츠향유 지원 확충 그리고 전문체육인의 생존권 보장 및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스포츠복지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한다.

스포츠복지란?

스포츠복지란 모든 국민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체육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광의의 개념과 스포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보 장을 해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피상적으로는 스포츠복지를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용어로 스포츠영역에서 복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세계의 스포츠복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활체육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생활체육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체육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복지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독일, 일본, 호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생활체육정책의 선진국

독일은 생활체육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원동력은 스포츠클럽(Sportverein)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국민의 1/3이상이 스포츠클럽에 가입되어 운동을 즐기고 있다. 1960년대부터 활성화된 스포츠클럽은 1990년도에 와서는 클럽 수가 7만 5천개에 달하고 클럽 회원수도 2천 만명을 넘어섰으며, 전체인구의 약 30%가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발전을 위해 독일체육회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체육회는 1959년부터 '제2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 부녀자, 가족, 노인 그리고 신체장애자들이 다 함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클럽 수가 4만개로 증가하고, 회원 수는 천만명에 육박하게 되어 전체 독일 인구의 약 16.7%가 스포츠클럽의 회원이었다.



트림운동 & 스포츠бет지 사업

독일 생활체육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트림운동(Trimm Dich)'이다. 트림운동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독일 전역에 실시된 대표적인 생활체육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1970~80년대에 약 8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스포츠클럽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오늘날 독일국민의 약 90%가 트림운동의 캐릭터인 트리미(Trimmy)를 인식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독일정부 및 독일올림픽체육회에서 트림운동정책을 바탕으로 내놓은 정책이 공원스포츠(ParkSport) 정책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독일 스포츠클럽이 변화하고 있다. 공원스포츠의 장점은 지역 내 스포츠클럽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본인이 속한 스포츠클럽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스포츠 종목을 다른 클럽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건강에 친근한 스포츠(Sport pro Gesundheit)', 스포츠 축제(Festivals des Sports), 독일 스포츠베틀지(Deutsches Sportabzeichen)와 같은 사업으로 변화하여 생활체육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독일 스포츠베틀지 사업은 1913년 베를린 청소년게임축제에서 시작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학교에서 시행되었으나 현재 스포츠클럽, 경찰, 군대, 장애인 등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상 연령대도 6세부터 90세 이상까지 확대되고, 체력의 변화로 인해 연령별 기준도 변화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스포츠베틀지 사업은 스포츠베틀지 체계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스포츠 베틀지 투어 사업을 강화하려는 등 새로운 사업형태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기본법’ 제정

일본은 과거부터 스포츠정책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2010년에는 새로운 스포츠문화 확립을 비전으로 하는 ‘스포츠입국전략’을 수립하였다. ‘스포츠입국전략’은 사람을 중시하고 연대와 협동을 추진한다는 기본적 관점 아래, 사회전체의 스포츠 활성화 기반 정비를 추구하였다. 5대 중점 전략으로 생애 기간별 스포츠 기회창출, 우수 엘리트선수 육성 강화, 스포츠계의 연대·협동에 의한 ‘호순환’ 창출, 스포츠계의 투명성 및 공평·공정성 향상, 사회전체의 스포츠 지원기반 정비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 중에서 스포츠계의 연대·협동에 의한 ‘호순환’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 300개 지역에 거점 종합지역스포츠클럽에 엘리트선수 등 우수한 지도자를 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스포츠진흥법’과 ‘스포츠입국전략’을 거쳐 2011년 6월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통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규정하였고 스포츠 관련 현재의 과제 검토, 스포츠에 관한 기본이념 정립,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와 스포츠단체 등의 노력 평가, 스포츠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장기적인 ‘스포츠기본계획’ 수립

일본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향후 일본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방 공공체육단체 및 스포츠단체 등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12년에 ‘스포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포츠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스포츠기본계획’과 ‘향후 5년간 종합적·계획적 스포츠 정책’으로 세분화했다. ‘향후 10년간 스포츠기본계획’ 추진의 기본 방침은 ‘스포츠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정책을 ‘연령,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스포츠를 실제로 하는 사람(참여 스포츠), 엘리트 경기대회나 프로스포츠관람 등 보는 사람(관람 스포츠), 지도자나 스포츠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육성)하는 사람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평생 동안 스포츠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령 제정으로 ‘스포츠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통해 스포츠복지를 실천하여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호주

ACE 프로그램(은퇴선수 지원 프로그램)



호주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현역시절과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해 ACE(Athlete Career & Educa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

빅토리아주 스포츠연구원 (Victorian Institute of Sport)에서 처음 소개된 ACE는 1994년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ACE는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엘리트 선수들에게 학업, 일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수는 1995년부터 약 2만 명 이상의 규모로, 매년 약 3천여 명의 엘리트 선수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동선수 경력관리 프로그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동안 정기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이후에는 약 1~2주 동안 워크숍과 교육을 진행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시간 관리’에 대한 심리상담과 학생과 교수 간 학사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은퇴 후 취업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ACE 프로그램의 필수조건으로 선정하여 각 팀에 ACE 코디네이터가 지원된다.

대학에서는 ACE 프로그램 선수 선발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1년 간 좋은 실적이 있었던 대학 2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주로 선발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ACE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수를 위해 대학입학시험에 5점 가점을 부여하고, 대학총장은 교수들과 선수졸업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하여 선수의 낙제를 예방하는 등의 참여 선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온라인 학점이수 프로그램도 운영

그런가하면, ‘Open University’라고 하는 온라인 학점이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시험 또는 장기훈련 등의 이유로 인한 수업 결손을 대체한다. 대학 입학 이전에는 모든 고등학교 선수를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대학 진학 시 다양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ACE 프로그램은 스포츠 관련학과 외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적 미디어(인터뷰) 교육 실시 등 선수가 실제 활동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한 선행교육도 진행된다.



영국

장애인체육의 발상지

영국장애인체육은 영국장애인올림픽협회(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BPA)에서 주관하고 있다. 영국장애인올림픽협회에서는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Playground to Podium(P2P)과 Deloitte Parasport' 라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layground to Podium(P2P) 프로그램은 영국의 대표적인 잠재적 장애인선수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운동장(Playground)에서 메달 시상대(Podium)로 향한다는 뜻을 내포하며, 풀뿌리 단계에서 전문적인 엘리트선수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P2P프로그램에서는 교사의 재교육, 7~11세 아동을 위한 기초 움직임 멀티스킬클럽(Multi-skill Clubs), 11~18세 아동을 위한 발전된 스포츠 중심의 멀티스포츠클럽(Multi Sports Clubs) 그리고 능력 확인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조직인 'Sport England'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Youth Sports Trust, Paralympics GB, UK Sport, 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EFDS)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발굴된 잠재적인 선수들은 종목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육상, 보치아, 축구, 수영, 탁구, 휠체어 농구의 6개 종목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및 지역 스포츠 활동에서 더 높은 수행과 경쟁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British Paralympic Association



57

과감한 투자와 후원, 수천 개 클럽들 등록

그런가하면, Deloitte Parasport는 전문 금융회사인 Deloitte가 영국장애인올림픽협회(BPA)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영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Deloitte는 활동적인 장애인스포츠 사회를 지향하였고,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Deloitte Parasport는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과 사용가능한 장소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Deloitte Parasport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혹은 경쟁 단계의 스포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Deloitte의 투자와 후원을 바탕으로 2007년 설립 이후 3,000개가 넘는 클럽들이 영국 전 지역에 등록되어 있고, Deloitte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 :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2015.12)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 임재욱, 김대희(2015.11)

가까이 다가온 봄, 가까운 곳에서 진하게 즐기자!



부산 & 대구 봄꽃 명소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지만, 어떤 꽃을 누구와 어디서 보느냐는 기준은 인생의 명장면으로 추억될 만큼 강력하다. 봄날의 상춘객은 부지런해야 한다. 언제 만개할지 모를 봄꽃을, 날씨가 하락하는 날에 제 때에 즐기려면 말이다.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봄꽃은 도심 속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봄꽃이 피고 지는 가운데,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오래 봄꽃을 즐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대구의 봄꽃 명소를 소개한다.

사진협조 : 부산관광공사/대구_달성군청/이월드

58



자전거타고 벚꽃 하이킹! 맥도생태공원

‘찰나의 찬란함’을 즐기는데 부산에서 이보다 긴 곳이 있을까. 전국적으로 소문난 부산의 대표 벚꽃군락지도 좋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벚꽃 명소로 가볍게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 봄날의 숨은 명소가 되고 있는 맥도생태공원(낙동제방길, 삼락공원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곳은 무려 12km가량의 벚꽃길이 조성돼 있다. 명지C에서 구포대교까지 뻗은 꽃길에는 자전거 도로도 있어 ‘벚꽃터널’ 사이로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니 후두둑 꽃비가 내리는 긴 길을 달려보자. 둔치를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길은 양옆으로 벚나무를 심어 벚꽃의 사연을 받으며 달리는 재미가 무척이나 쏠쏠하다.

관련축제_ 2017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 : 4월초 예정
위치_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390

교통_ 도시철도 : 1호선 하단역 또는 3호선 강서구청역
에서 마을버스 13번을 타고, 맥도생태
공원 하차

승용차 : 동서고가로 낙동대교 지나 남해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전 김해공항·진해 방면으로
나와 명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샛노란 웅단이 펼쳐지다! 대저유채단지

대저유채단지는 36만3000㎡ 규모의 국내 최대 유채꽃 단지로 꼽힌다. 4월말에서 5월초 무렵, 온통 샛노란 유채로 뒤덮이는 이곳에서는 매년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꽃동산, 조형물, 포토존 등 다양한 포토존을 운영해 상춘객들이 '인생샷'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좋다. 그런가하면, 꽃마차, 연날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려 가족단위 나들이로도 그만이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낮 시간에는 행사장 곳곳에 거리무대(버스킹)를 열고 시민들에게 유채꽃 관람과 함께 감미로운 음악도 울려 퍼진다.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는 대저유채단지의 낙동강 유채꽃 축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속 봄꽃 축제다.



관련축제_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 : 4월초~중순 예정

위치_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2314-11

(대저생태공원관리사무소)

교통_ 도시철도 : 3호선 강서구청역 앞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시내버스 : 123, 124, 127, 128-1, 307번 강서구청 or 강서구청역 하차





밤의 벚꽃 그리고 로맨틱! 두류공원

1,7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진 두류공원은 대구의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두류네거리에서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는 1.3km의 코스는 아름다운 벚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성당못에서부터 두류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잇는 구간은 산책로로 좋다. 두류공원과 붙어있는 이월드(구 우방랜드)는 벚꽃이 만개할 시기에, 벚꽃과 별빛축제를 결합한 전국 유일의 야간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무려 830만개의 전구로 꾸며진 루미나리에가 압권인 83타워는 화려한 조명 불빛으로 빛난다. 기회가 되면 타워에도 올라보자. 주먹만 한 왕벚꽃들이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비경이 불빛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관련축제_ 이월드 별빛벚꽃축제 : 2017.03.25(토)~2017.04.09(일)

위치_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핑크빛 절정이 온 산에! 비슬산

해발 1,084미터의 장중한 산세를 지닌 비슬산! 전국 최대 참꽃군락지인 비슬산 일원은 매년 4월말이면 비슬산 정상 100만㎡의 참꽃군락지는 관광객과 등산객 등 남녀노소 모두가 봄을 만끽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 참꽃문화제에서는 산신제를 비롯해 참꽃가요제, 참꽃화전 굽기 등 참꽃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산이라고 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축제기간 동안 임시주차장부터 휴양림입구까지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가 여행의 편리함을 더한다.

관련축제_ 비슬산 참꽃문화제 : 4월말 예정
위치_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휴양림길 230

봄날의 대구,
대구 10미(味)는
필수!

Tip

나들이에서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수 없다. 대구에 갔다면, 꼭 먹어보자! 식도락과 함께 봄꽃놀이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대구10미(味) : 따로국밥, 복어불고기, 몽티기, 동인동 찜갈비, 누른국수, 납작만두, 막창, 야끼우동, 무침 회, 논메기 매운탕



그 외 전국 봄꽃 축제 일정

- 구례 산수유 꽃 축제_2017.03.18~2017.03.26
- 진해 군항제_2017.04.01~2017.04.10
- 신안 톨립축제_2017.04.07~2017.04.16
- 의성 산수유 꽃 축제_2017.03.25~2017.04.02
- 합천 황매산철쭉제_2017.04.30~2017.05.14
- 영취산 진달래축제_2017년 4월초
- 태안 세계 톨립 축제_2017.04.13~2017.05.10
- 고양국제 꽃 박람회_2017.04.28~2017.05.14
- 제주 유채꽃축제_2017년 4월초

향기로운 차茶의 향연, 봄의 절정이 펼쳐지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내려앉은 날,
아지랑이 피는 창밖을 내다보며 봄을 즐기기에
'차' 만큼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봄의 에너지가 찻잔에 내려앉으면,
입안에서는 향기로운 향연이 펼쳐진다.
찻잔 속에 찻잎이 피어나듯
봄날의 차는 '마시는 행복'이다.



62

꽃망을 머금듯 **꽃차**

봄은 꽃차를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꽃차는 물을 부었을 때 꽃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나는 '공예차工藝茶'와 얇은 잎으로 만든 두 종류로 나누는데, 특히, 봄에는 해바라기꽃차와 벚꽃차가 어울린다. 해바라기꽃차가 마치 국화차와 비슷한 향이 난다면, 벚꽃차는 꽃잎을 말려 우려낸 까닭에 은은한 허브향이 감돈다. 꽃차는 두 번째 우려낸 것이 가장 좋고, 세 번 이상은 우려내지 않는 것이 좋다.

피톤치드 향까지_솔잎차

봄의 솔잎은 알려진 효능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하다. 대표적으로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준다. 특히, 솔잎은 위장 운동을 촉진해 더 부룩하고 불편한 속을 진정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 솔잎차는 잎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깨끗이 씻어 물 600ml에 솔잎 10~15g을 넣고 약한 불에 달인 뒤, 꿀이나 설탕을 첨가해 달콤한 맛을 조절하면 된다.



어린잎의 에너지_녹차

녹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세작-중작-대작으로 나뉘는데, 곡우(穀雨·음력 3월 중순)를 전후로 가장 먼저 따는 찻잎을 '우전'이라 한다. 감칠맛이 특징인 우전은 차의 감미를 내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전을 우려낼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60°C~70°C에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우려내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이 너무 길면 찻물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향기를 잃는다.

63



보들보들 향긋한_쑥차

봄이라 쑥이 지천이다. 특히, 오월 초는 쑥차 만들기 좋은 때다. 쑥은 줄기가 올라오며 쓴맛이 돌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전이 쑥차를 즐기기에 좋은 때다. 쑥은 소금물에 담가 이물질을 씻어내고 여러 번 세척 뒤, 그늘에 바짝 말린다. 차로 끓일 때는 물을 끓인 뒤 불을 끄고, 쑥을 한 움큼 넣어 우려 마시거나, 말린 쑥을 가루로 내어 곡차에 넣어 마시면 좋다.





삶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책'

어느덧 한 분기가 지나고, 계절도 바뀌었다. 혹시, 올해 계획 중 하나가 '책을 읽자'는 것은 아니었는지? 책도 습관이라, 당장 읽으려면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특히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지금에는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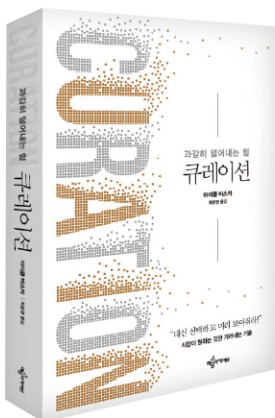
64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필립 짐바르도 | 존 보이드 (지은이) | 프리언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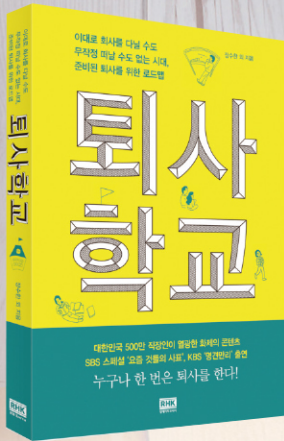
바쁜 우리들은 인생의 여러 선택들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30년간 15개국의 수만 명의 삶을 관찰하며 일생을 보낸 뒤, 시간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흥미롭게 담아냈다. 저자들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방식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큐레이션_과감히 덜어내는 힘

마이클 바스카 (지은이) | 예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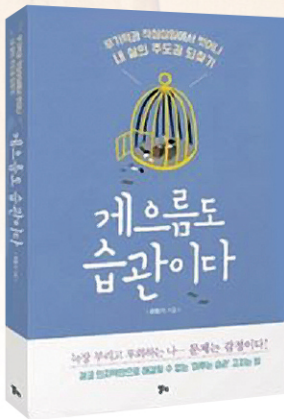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에 지쳐 있다. 큐레이션(Curation)은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힘이자, 선별과 배치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만 가려내는 기술이다. 저자는 이러한 큐레이션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큐레이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퇴사학교

장수한 | 신지원 | 김연지 (지은이) | 알에이치코리아(RHK)

이 책은 퇴사를 독려하는 책이 아니다. '퇴사'라는 상징적인 화두를 통해, 직장인의 미래 커리어와 일의 가치, 행복한 인생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5학기의 커리큘럼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다가오는 퇴사의 시대를 조명하고(1학기), 지금 내 회사 생활이 왜 힘든지를 진단한 뒤(2학기), 회사를 다니는 동안 무엇을 배울지를 고찰한다(3학기). 그리고 퇴사 이후 맞닥뜨리는 진짜 현실에서의 교훈과(4학기), 이를 기반으로 '준비된 퇴사'를 위한 대안을 탐구한다(5학기).



게으름도 습관이다

최명기 (지은이) | 알키

우리는 대부분 작심삼일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 게으름을 만드는 요인은 '의지력'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게으름의 문제가 의외로 간단치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을 부르는 감정 9가지를 소개하며, 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읽다보면 뭔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이미경 (지은이) | 남해의봄날

동전 하나 손에 쥐면 마음이 한껏 부풀었던 날들, 한달음에 달려가 군것질거리를 고르던 시간, 해가 저도 가로등이 환해 아이들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던 구멍가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가는 구멍가게를 저자는 발로 뛰며 찾아내어 화폭에 담았다. 소소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한 그의 시선은 잊고 지낸 작은 행복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단순히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돌아보게 한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 (지은이) | 예담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저자가 여러 문인의 시를 직접 읽고 따라 써보며 시를 엄선했다. 이 책에는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 백석 같이 교과서에서 접해 친근한 작가의 작품은 물론, 김혜순, 황지우, 천양희, 이성복, 신경림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문인의 시, 폴 엘뤼아르, 프리드리히 니체, 요한 괴테 등 외국 작가의 메시지까지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총 111편의 시를 따라 쓰며 시인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가 헤매는 우리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른다.

참조 : 각 출판사 서평

2017 자전거로 녹색부산 으름으로 시민건강 부산시민자전거대회

2017. 4. 8(토) 9:00 화명생태공원(민속놀이마당)

일 시 2017. 4. 8(토) 09:00 ~ 15:00

개 회 식 2017. 4. 8(토) 09:30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

대회코스 가족코스(24km) : 화명생태공원 ⇄ 호포다리 ⇄ 물금 취수장
일반코스(45km) : 화명생태공원 ⇄ 물금 취수장 ⇄ 가야진사

참가자격 자전거 동호인 및 일반시민(참가비 없음)

참가인원 1,500명(일반코스 : 1,000명, 가족코스 : 500명)

접수기간 2017. 2. 27(월)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pop-up 접속 www.sports.busan.kr

개회식장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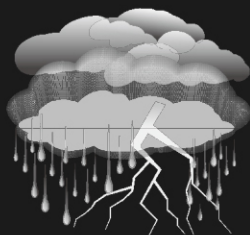


같은 길이지만,
다른 효과!!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굿윌치과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테니스를 쳤는데 입으로 받았다!



치과가 필요할때....



굿윌치과병원



Will be Good.
굿윌치과병원
GOODWILL DENTAL HOSPITAL

굿윌치과병원_덕천
051) 330.6000

굿윌치과병원_하단
051) 209.6000

굿윌치과병원_서면
051) 606.6000

좋은삼선병원

진료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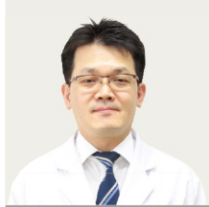
어깨 · 척추 · 수족부 관절센터

어깨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어깨 · 팔꿈치 질환의 비수술 치료,
목 ·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최소 침습 척수 수술, 고관절 질환,
고령자 고관절 수술, 수족부 관절 질환, 무지 외반증,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 척추 · 수족부 관절센터 상담

T. 310-9267

첨단 의료 장비와 맞춤형 치료를 통한 기능 회복



조형래 정형외과
진료내용 어깨 · 팔꿈치 질환



김형민 정형외과
진료내용 수부 및 족부 질환



황태혁 정형외과
진료내용 척추 · 고관절 질환

• 어깨 · 팔꿈치 질환의 수술과 재활

-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 관절 초음파를 이용한 정밀 주사요법
- 비수술 체외 충격파 및 고주파 요법
- 맞춤형 재활을 통한 조기 복귀 지향

• 수족부 질환의 미세수술

- 수부 골절과 인대 손상
- 손목 통증, 터널 증후군
- 무지 외반증의 교정술
- 신경 성형술, 골관절 종양

• 척추 · 고관절 질환의 최소 절개수술과 비수술요법

- 영상 장치를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 풍선확장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술
- 노인성 고관절 골절의 선택적 수술
- 고관절 무월성 괴사, 인공 고관절 수술

좋은삼선병원의 어깨 · 척추 · 수족부 관절센터는 첨단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한 진단에 의해 퇴행성 또는 외상성 관절 질환을 치료합니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 수술과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여 질병의 치료기간을 단축 시키고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진료내용

무릎관절 · 스포츠의학 · 운동치료센터

퇴행성 무릎 관절질환, 인공관절 수술, 무릎 십자인대 · 반월상 연골 질환,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술, 관절 내시경 연골 이식,
스포츠 손상의 치료와 종목별 재활, 스포츠 운동 기능 평가

무릎관절 · 스포츠의학 · 운동치료센터 상담 T. 310-9535

무릎 관절 질환과 스포츠 손상의 정밀한 수술과 운동재활 요법



왕태현 정형외과
진료내용 무릎 관절 · 인공관절



박기봉 정형외과
진료내용 무릎관절 · 관절 내시경



진홍기 정형외과
진료내용 견주관절

• 무릎 관절 질환의 단계적 치료

-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수술
-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 무릎 절골술을 이용한 관절 보존
-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한 맞춤형 수술

• 연골결손의 관절 보존

- 외상성 무릎 질환의 수술과 재활
- 관절내시경 십자인대 재건 수술
- 자가연골이식, 재생, 줄기세포 치료
- 컴퓨터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수술

• 스포츠 손상의 수술과 재활

- 급만성 스포츠 관절 손상의 수술과 재활
- 스포츠 손상의 정밀 초음파 진단과 시술
- 무릎, 발목 다발성 인대 손상의 수술
- 운동 장치를 이용한 재활 중점 치료

좋은삼선병원의 무릎관절 · 스포츠의학 · 운동치료센터는 스포츠 손상을 손상 부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활 요법과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무릎 관절 질환을 연골 손상의 정도와 나이에 따라 비수술 요법, 무릎 관절 절골술, 부분 또는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 >> 내과(소화기) 송철수 이태영 박미정 정정임 윤종민 이진성 / 호흡기 윤율봉 / 순환기 이일 유정남 / 신장 이우철 강효진 / 내분비 최영근, 외과 김호영 전명진 장종익 산부인과 박성우 방재희, 소아청소년과 민상기 정영희 배윤진, 정형외과 김형민 조형래 황태혁 왕태현 박기봉 진홍기, 흉부외과 광기오, 이비인후과 이일우, 정신건강의학과 정형모, 신경과 박영혁, 신경외과 권위현 정재원, 비뇨기과 남형중 안재현, 가정의학과 송영권, 재활의학과 강민성, 직업환경의학과 윤성호 이영일, 안과 김미선, 치과 박재형 이세희, 영상의학과 김윤주 김양숙 김상수 김정근, 마취통증의학과 김상보 채명길 류상훈, 진단검사의학과 이용성, 병리과 이진숙, 응급의학과 김우연 이재훈 박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TEL. 051-322-0900 / www.samsun.or.kr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콜핑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서현진의 콜핑! 도시와 호흡하다 _

매일 걷고, 달리며 도시와 호흡하는 당신. 콜핑의 애슬레저룩을 제안합니다



콜핑이면
도시와
호흡하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편안함도 품격도 역시 파크랜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고 상쾌할 수 있도록
스트레치 소재에 상쾌함을 지켜주는
위버쿨 안감을 더하다.
편안함으로 시작되고
상쾌함으로 완성되는 품격,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똑같은 한 걸음도
무게감은 다르다!



인정엑스포?

VS



등록엑스포!

사상 최대 진짜 엑스포!

민선 6기 부산시가 추진하는 진짜 EXPO,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로 국가적 위상부터 다릅니다!

BUSAN WORLD EXPO 203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엑스포, 등록엑스포란?

엑스포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이익 증대, 인류에 발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인류공동의 가치 실현,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큰 이벤트로 유,무형의 효과가 막대함이 입증되어, 국가간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월드컵, 올림픽보다 월등한 '등록엑스포'

월드컵, 올림픽은 국가홍보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지만, 등록엑스포는 주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므로 개최도시의 경제효과 창출이 막대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록엑스포
개최기간	1개월	16일	6개월
관람객	300만명	300만명	5,050만명
경제효과	11조원	12조원	49조원

2030 부산등록엑스포 개최(안)

기간 : 2030. 5. 1 ~ 10. 31(6개월간)
장소 : 서부산 일원 350만㎡
참가국 : 160개국(관람객 5,050만명 이상)
개최효과 : 투자액 4조 4천억, 경제효과 49조, 일자리 54만개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20 두바이
투자액	5.2조	4.3조	6.9조
경제효과	110조	63조	38조
일자리	63만개	15만개	28만개